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유아부(2-3세) / 본당 2층 영아부실, 온라인 11:00AM
- 유치부(4-5세) / 유치부실(구식당), 온라인 11:00AM
- 유년부(1-3학년) / 임마누엘, 온라인 11:00AM
- 초등부(4-6학년) / 체육관, 온라인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온라인 11:00AM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온라인 9:00AM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온라인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비전채플, 온라인 2: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31.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빌립보서 2:14-18..... All together **다같이**
4부/사무엘상 2:1-11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11) 자랑스런 달음질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찬509/새456장),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십자가 군병 되어서(찬391/새353장)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나의 자랑

My Pride



박경철 목사 / Rev. Kyung Chul Park

지난주 아내가 이전에 한국에서 교제하고 지냈던 집사님이 오랜만에 연락을 주셔서 통화하게 되었다고 하며 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혼하시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사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초등학생이던 그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로 인하여 힘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반갑고 좋은 시간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게 뭐가 좋은 이야기지?”라고 반문을 하니 아내가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본인 아들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혹시 당신이 설교나 사역할 때 예화로 사용해서 누군가 위로받고 은혜로 나아오게 될 수 있다면 사용해 달라고 하시던데? 그래서 난 오늘 대화가 좋았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격려와 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집사님의 말이 한동안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자기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싶어 할까요? 저라면 아마 나중엔 큰 교회 목사가 되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모두 그런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리라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간증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면 어떤 이야기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발가벗기고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욕을 듣고 계시는 십자가에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그곳은 나의 자랑이 있지 아니하고 저 깊은 사망으로 떠내려가는 나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장소이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도 그 십자가의 부끄러운 이야기는 복음이 되어 전 인류를 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자녀 문제로 또는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남들에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랑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나의 이 상황 속에 예수께서 계신다면 그 상황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자랑하고 이 길 힘을 주시는 그분을 증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라디아서 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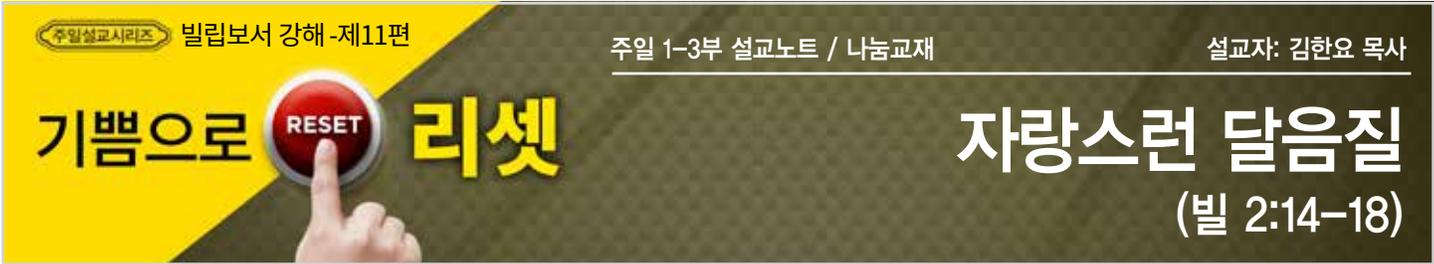
Last week, my wife shared with me a phone conversation she had with someone we knew from Korea. The deaconess is divorced and raising a son by herself. The conversation was about difficulty she was having with her junior high son. Her son was in elementary school when we were in Korea. Even though they shared in a conversation about hard times, my wife said that she was delighted and had a good sharing. So, I asked, “Why would you say that was a good conversation?” My wife said calmly, “The deaconess asked to share her story as an illustration in your sermon if it can comfort and help someone? That’s why, for me, it was a good conversation-!” As I went to bed, I could not stop thinking about her story whose life depended on God, and how her story can be a strength to someone.

If I want to glorify God by sharing my life’s testimony, what kind of testimony will I share? For me, one day when I become a senior pastor of a big church, I would want to glorify God by sharing the history of how God led me. If we don’t have anything to be proud of, we may feel we cannot glorify God.

However, as a believer, I thought about a testimony from the Bible that gave God the greatest glory. My heart rested on the story of Jesus’ cross, unclothed and hearing shameful words. Why was God most glorified there? There was no pride there. It was a place of salvation for me who was being swept away toward death. Even now, the shameful story of cross is a good news that will save mankind.

Do you want to hide your story because it is not something to be proud of as a believer of Jesus, such as difficult problems with raising children that will not resolve, illnesses, or financial difficulties? However, if Jesus is in your situation, by the strength of Jesus Christ, you should be proud of and witness to Jesus Christ who is in your midst

“May I never boast excep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ich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and I to the world.”(Galatians 6:14)



1. 몸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운동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2. 빌립보 교회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work out(워크 아웃)' 해야 할 부분들을 바울은 네 가지로 꼭 짚어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래 빈칸을 채워가며 나에게 필요한 워크 아웃을 나눠 봅시다.

1) _____ (14절, 참고/ 출 16:2-3, 뱀전 4:9)

2) _____ (15절a)

3) _____ (15절b)

4) _____ (16-17절, 고전 15:18)

3. 내가 가장 힘써야 할 워크 아웃은 무엇인지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적용찬양: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찬509/새456장),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차봉’으로 주께 영광

길었던 팬데믹이 끝나고, 현장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주차장에 섰습니다. 도로 공사로 혼잡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중 주차를 해야 하는 불편 속에서도 현장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의 환한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중현 집사

2019년 겨울, Parking Ministry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안수집사님들께서 주차 사역에 대해 정말, 아주, 매우, 잘 가르쳐 주신 덕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두 가지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훌륭한 신앙의 선후배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정도의 아주 짧은 Vision Parking Lot 사역과 지금의 Church Parking Lot 사역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둘째, 훌륭한 신앙의 선후배님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듬어 주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라고 느끼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그리고 때로는 신앙의 친구, 선후배님들을 통해 항상 저의 삶을 'RESET'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Kevin Ma 집사

주일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과 처음 대면하게 되는 주차 봉사는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예배의 첫 시작은

Parking Lot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자의 마음가짐으로 시작되는 특별한 사역입니다. 매주일 반갑게 인사하고 미소로 응대하며 그동안 몰랐던 베델의 가족을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기도 하며, 더위에 고생이 많으며 건네시는 따뜻한 말씀에 섬김의 기쁨을 맛보고 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의 환해진 얼굴을 마주하며, 짧은 은혜의 시간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점차 늘어나고, 팬데믹도 종식되어 예전처럼 비전 주차장과 교회 뜰에서 모두를 만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박원규 집사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우리가 살아갈 동안 다 시없을 사태로 인해 이번 기수는 2년간 섬기게 되어 베델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제1기 사관생도 훈련처럼 노란 조끼를 입은 주차팀은 교회 입구와 파킹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주차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닙니다. 하나님과 이웃, 교회와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벽 공기를 마시고 이슬을 밟으며 시작되는 섬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팀장님과 팀원들을 보면서 진정한 섬김을 배우고 느끼게 하십니다.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내는 우리의 자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오가는 차량을 통해서 넘치도록 느끼게 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에 대한 답을 구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주차사역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롬!

진정훈 집사

교회에 첫발을 내딛는 성도님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것으로부터 주차 사역은 시작됩니다. 환한 미소로 안내를 받으며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본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이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며 한 분 한 분 정성껏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임 안수 집사님들이 작년 일 년간 사역 하셨는데, 팬데믹 사태로 올 한 해를 더 섬기게 되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내년에도 또 하라면서 하겠다는 각오와 순종으로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심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많은 성도님이 다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저희는 주차 봉사가 힘들어도 좋으니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어 많은 성도님들이 물밀듯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이전의 현장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홍대원 장로



베델 45주년 특집 (2)

땅끝까지 복음 전하리

<도약기>

남가주에 있는 대형 한인교회를 넘어, 북한 동족을 위해 기도하는 민족의 대제사장 교회로 위상을 높이는 시기입니다. 외적으로는 KCC 통곡 기도대회를 중심으로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면서, 내적으로는 거룩한 새 예배당을 건축하여 봉헌하였습니다. 수많은 베델 교인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여 지금의 베델 교회를 완성하는 데 뜻과 정성을 모았습니다. 실로 교회적으로, 교인들의 신앙적으로 크게 도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00년-쌍투스(여성), 칸투스(남성) 중창단이 창단되어 은혜의 하모니가 성전에 울려 퍼집니다.

2003년-BYM 여름 선교 시작(아리조나, 멕시코, 벨리즈,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성극제

2004년-친구동산, 성극제, 소망부 시작. 1차 크라운 재정교실 크리닉 개최. Fresh 청소년 집회.

2005년-1차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회가 새해 새벽에 시작하였으며, 베델 생활강좌, 북한 선교 후원 바자회, KCC LA 통곡 기도대회가 열렸습니다.



엘리아 특별 새벽기도회



북한 선교 후원 바자회

2006년- Family Fall Fest 시작, 한미 의료선교대회 개최



의료 선교대회

2007년-야베스 새벽 기도회 시작(새 성전 건축을 위한 토요 새벽 기도회로 시작 ~2013)

2008년-본관 건축 시작. 청년교회 '예수채플' 설립(한어 대학부와 청년부 통합), 미래 목회 세미나 개최, 갈릴리 수양관 봉헌.



새 성전 입당

2009년-새 성전 입당. Come & See 총동원 이웃 초청 주일 등 새 성전에서 베델교회의 새 역사가 쓰여집니다.

2010년-사메아 기도운동 발족. 1차 KCC 워싱턴 햇빛대회 개최. 화요 여성축제가 시작되어 여성도들을 위한 말씀 공부에 깊어집니다. 또한 CX LIVE 청소년 찬양 집회, 연례 교사 만찬회, 성탄절 Family Worship이 시작된 해입니다.

2011년-수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대각성 기도회 시리즈 시작. 아기학교 개설.

2012년-NK24 BYM 학생들이 베델 교회와 열바인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여 탈북자들과 굶어 죽어가는 북한의 아이들을 기억하며 Fund Raising을 시작했고, 24시간 금식을 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첫 번째 사역을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성숙기>

Mission 1.8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모토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 교인을 복음으로 재무장하는 질적 변

화를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이민교회에 필요한 새 감각의 목회 스타일로 다시 한번 신앙의 끈을 묶고, 새로운 소명 의식으로 교회 성장을 이끌어갑니다. 또한 선교사의 섬터가 될 베델 선교관 건립 등을 추진하였으며, 손인식 목사 은퇴와 김한요 목사 취임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2013년-일본어 예배 개설. 10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김한요 목사 동사 목회 시작, 손인식 목사 선교사 파송 및 송별 예배.

2014년-김한요 목사 4대 담임 취임. 헬시바 새벽기도회 시작. 은퇴 장로 조찬모임 시작(담임 목사와 은퇴 장로들의 교류의 시간), 베델 중보기도자 훈련학교 시작. 시니어들을 위한 MIT 대학 개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새생명 축제 등 비전과 열정으로 혁신적이며 뜻깊은 사역들이 첫발을 내딛습니다.



MIT

2015년-김한요 담임 목사 위임 예배, 주님과과의 행복한 동행인 '주행'이 시작되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소그룹으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시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행

2016년-1회 B+B(사별/이혼 가정 회복) 사역으로 치유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기획하며, 본당 LED 스크린 설치 등 베델 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더욱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으로 성장해갑니다.

(다음 주 주보에 계속)

수요 특별기획 "예수야"

하나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이라는 찬양은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지만 제가 가장 힘든 시간에 많이 들었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2019년은 제가 번아웃을 경험함과 동시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리도 힘든 시간을 주는지 고민했던 해였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 "모든 날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주셨다"는 구절이 특히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가사는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도 지키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었습니다. 같은 시기 제 친구들 역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우리는 이 찬양을 들으며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심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기때문에 "Goodness of God"이라는 찬양은 영원히 제 가슴 속 특별한 찬양으로 남을 것입니다.

Gloria Park

몇 년 전 저는 인생의 많은 불확실함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고 세상이 주는 압박이 힘에 겨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커다란 반석들이 많이 있는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석들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중 한 반석에 오르자 즉시 반석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급히 다른 단단한 반석을 찾아 올라섰습니다. 이 짧은 경험이 저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인생을 살며 단단한 반석 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복음 6장 47-48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능히 요동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지으며 하나님만이 제 단단한 반석이신 Firm Foundation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 모든 소망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둘 때 삶의 어떤 계절을 거닐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요동케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단단하며, 확실하며, 강하신 Firm Foundation이십니다.

Peter Lee 전도사

"주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찬양은 저희 부부에게 참 특별한 찬양입니다. 저와 남편은 오랫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며 저는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였고 남편은 미국에서 대학생 사역을 하였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일한 끈은 서로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환호와 기쁨이 가득했던 그 날, 저희 두 사람은 "주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찬양을 혼인 예배 중 울려드리며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힘든 시간과 어려운 시기들을 지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준 것은 온전히 그분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선하신 분인지를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과 마음가짐이 180도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의 기억을 통하여 저희 부부는 파도 속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과 결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홀로 영원하신 그 이름을 높이 높이 올려드립니다.

정가영 전도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 민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기도: 이충경 목사
-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 화평 목장/세뎌위십/셀: 박경철 목사
- 새가족/경조: 한순교 전도사
- BGC: Justin Kim 목사
- BGC(Family):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삼채플: 서찬석 목사
- 예삼채플: 김유미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 초등부: 김은정(Jamie) 전도사
- 유년부: 장지은(Jieun) 전도사
- 유치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유아부: 정가영(April)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 지휘자: 박정영, 차은하, 이사무엘
- 오케스트라: 박정영
- 피아노: 신현진, 지지영, 한현미, 이해경
- 오르간: 이정은, 이해경, 박정연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한어권: 정티나 간사
- 한어중고등부: 김소영 간사
-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이너: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지역광고

BYM 고등부 여름 수련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위에 대한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은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올해는 삶의 리듬이 급진적으로 바뀌며, 학생들에게 많은 불확실성을 안겨줬습니다. 정상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복음은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아진다고 말합니다. 삶이 더욱 불확실해지면 우리는 더욱 확실한 것을 굳게 붙잡습니다.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남는 것 위에 서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굳건한 반석"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수련회를 통해 학생들이 예수님만이 확고한 기초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 ▶ 기간: 8월 11일(수) – 8월 13일(금)
- ▶ 시간: 오후 3시-10시
- ▶ 장소: 비전채플
- ▶ 등록: bethelunited.org/retreat
8월 6일(금)까지
- ▶ 문의: John Yeo 목사
(818)270-5454
김학남 집사
(408)806-4133

BYM HS Retreat

Fear of the future. Fear of status. Fear of failure. Fear of change. Fear stems from uncertainty. This past year there was much uncertainty for students whose rhythms of life were radically changed. Even now, there is still uncertainty of going back to normal. The good news is that the darker it gets, the brighter the light shines. When life becomes more uncertain, we hold on even more to what is certain. When life starts to crumble away, we get to stand on what truly remains. Our high school retreat theme is "Firm Foundation" because we want our students to stand firm in the never-changing love of God in an ever-changing world. We want our students to be able to boldly proclaim that Jesus is their firm foundation: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예배 봉사자

강단꽃(8월) | 8/8: 정경애, 현승원 8/15: 김유민, 윤주원, 조현지, 최하자 8/22: 박복희, 양석주, 정선경, 최하자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욱)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이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성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삼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류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길진명)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네이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리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주일 및 토요 헬스바 현장 예배 신청 안내** 베델교회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신청은 매주 화요일 새벽 5시 30분에 카톡 채널을 통해 발송된 예배 신청 링크와 교회 홈페이지(bkc.org)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교회 주차장 진입 안내** 최근 교회 강변 트레일 도로 공사로 인하여 많은 자전거와 보행자들이 우회하여 교회 주차장 입구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주차장 진입시 매우 위험한 가운데 있으니, 성도님들은 주일 또는 주중에 교회 주차장 진입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특별기회 "예수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수요일 아침)"** 돌아오는 수요일(11일)에 방영되는 7회에는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삶과 말씀을 찬양에 담아 은혜로운 수요일 아침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베델 선교 "히즈윌 스쿨" 봉사자 모집** 베델 선교가 새로운 발을 내딛습니다. 선교지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 가정의 자녀를 섬기고 교육하기 위한 베델 히즈윌 스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ESL)으로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태현 장로 (949)939-1862

◆ **양육반/베델 제자반 모집**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되어 자라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훈련을 통하여 복음을 심화 시키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9월 첫 주에 시작할 가을학기 훈련생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구분: 양육반(제자훈련 2단계, 16주), 제자반(제자훈련 3단계, 30주)
신청 기간: 8월 9일(월)-8월 29일(주일)
신청 방법: 교회 홈페이지 bkc.org 또는 교회 마당 부스(8월 15, 22, 29일)
*모든 훈련은 대면(In-Person)을 원칙으로 하나,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영어가 편한 분들을 위해 영어 양육반, 제자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김중학 집사 (949)285-9408

◆ **55차 전도폭발 모임** "전도의 태도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 복음증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생사의 순간에도 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폭발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배우고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훈련하게 됩니다.
훈련 일정: 8월 31일-12월 7일(총 15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훈련 방법: 현장 모임과 온라인 Zoom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 **미디어 리셋 캠프** 팬데믹으로 인하여 미디어가 우리 자녀들의 생활의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미디어속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디어를 어떻게 분별해야할지 배우고 훈련받는 캠프에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등록 기간: 8월 1일-8월 15일
등록처/대상: 교회 홈페이지 bkc.org, 4-8학년 (현재 학년)
기간: 9월 26일(주일)-10월 24일(주일) (매주 주일 오후 12시 30분-3시)
문의: 안지호 팀장 (949)241-1807

◆ **예살 홈커밍데이 집회** "세대에서 세대를 잇는 부흥"이라는 주제로 예살 홈커밍데이 집회가 열립니다. 예살 청년 및 예살 출신의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을 사랑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정/장소: 8월 22일(주일) 오후 2시, 4부(청년) 예배, 본당
강사: 손경일 목사(산호세 새누리 교회 담임)
문의: 강문구 목사 (949)506-6905

◆ **베델 공모전 "칭찬합니다"** 서로를 칭찬하며 기쁨과 은혜의 꽃을 피우는 베델의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기간/원고 분량: 8월 1일(주일)-8월 21일(토), 워드 120단어
보내실 곳: bethelnews@bkc.org이나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문의: 유미경 권사 (949)422-9046

◆ **BYM 중등부 여름 수련회(Wilderness Summer Retreat)** "The Wilderness(광야)"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중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간/장소/회비: 8월 27일(금)-8월 28일(토), 비전채플, \$60
문의: Daniel Hyeon 전도사 (949)677-4911, 천승현 집사 (512)947-7291

◆ **BYM 고등부 여름 수련회** 많은 것이 변하고 불안정한 이 시대에 "Firm Foundation"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7면 참조)
일시/장소: 8월 11일(수)-8월 13일(금) 오후 3시-10, 비전채플
문의: John Yeo 목사 (818)270-5454,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BYM 고등부 Taco Night** BYM 고등부 학생들과 그 가족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자녀와 함께 타코를 드시며 교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8월 14일(토) 오후 5-8시, 코트야드
문의: John Yeo 목사 (818)270-5454,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교회학교 교사 모집** 교회학교에서 교사분들을 모집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신실한 교사 분들을 찾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집 부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망부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축하해 주세요**
- 박종훈, 김영심 성도 가정에 딸 하루(Haru)가 8월 5일(목)에 태어났습니다.
- 임진수 형제와 이승혜 자매의 결혼식이 8월 7일(토)에 있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Richard Kim 성도님(김현중 성도의 부친, 성현실 성도의 시부)께서 7월 28일(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하상갑 권사님(한현미 권사의 모친, 한상성 장로의 장모)께서 8월 3일(화)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강봉창 성도님(이은실 권사의 부친, 이석희 장로의 장인)께서 8월 6일(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효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기쁨으로



리셋

Proud Run (Philippians 2:14-18)

1. Have you experienced exercising to strengthen parts of your body?

Apply to Life



2. Paul is ordering four things for Philippians church to 'work out' their own salvation. Fill in the blanks below and share the workouts that you need to do.

1) _____ (v.14, Ref: Ex 16:2-3, 1Pet 4:9)

2) _____ (v.15a)

3) _____ (v.15b)

4) _____ (v.16-17, 1Co 15:18)

3. Share which workout you should put your greatest effort into and then pray for each other.